

ABARES 2016 농업전망 : 설탕 및 면화부문 *

원 지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2016년 설탕부문 전망

세계 설탕원물지수 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설탕 소비량이 생산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설탕 재고량 전망치가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러한 소비량 증가 추세는 중기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결과 설탕 재고량 감소 추세 또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21년 설탕의 소비량 대비 재고율은 약 2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2014/15년의 43%와 비교해보면 뚜렷한 하락세를 볼 수 있다.

한편 소비량 증가 및 재고량 감소 추세의 중기적인 여파를 고려할 때, 2020/21년 세계 설탕 가격은 파운드 당 평균 16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2015/16 달러 기준). 위와 같이 중기적으로 예상되는 높은 설탕가격을 고려할 때, 2020/21년 호주의 설탕 생산 농가 수익은 톤 당 약 44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2015/16 달러 기준), 이는 2015/16년 예상치인 톤 당 37달러와 비교하여 상승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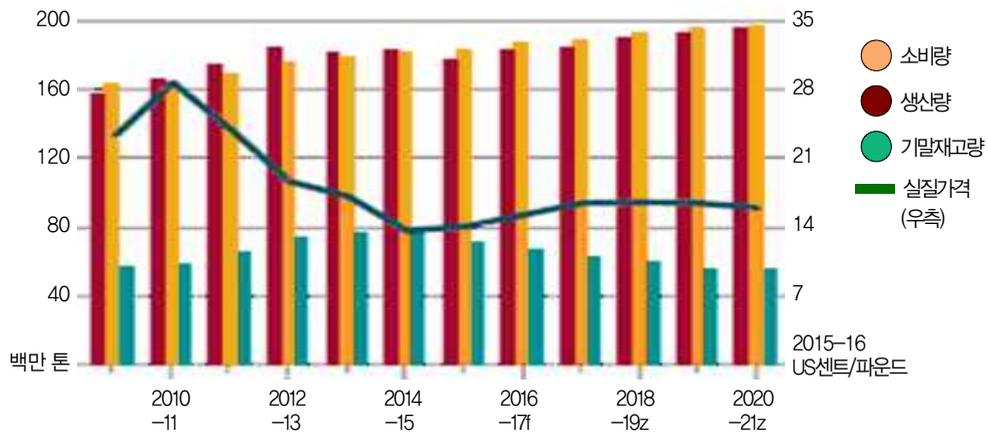
* (jewon@krei.re.kr). 본고는 호주 농업·수산업·임업분야의 정책연구기관인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의 2016년 농업전망을 바탕으로 작성됨.

1.1. 설탕부문 단기 전망

1.1.1. 2016/17년 설탕가격 상승 전망

2015/16년 세계 설탕원물지수는 5% 상승하여 파운드 당 평균 14센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5/16년 세계 설탕 소비량이 생산량 수준을 초과함에 따른 재고량 감소와 이로 인한 가격상승 압력에 의한 것으로, 만약 이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설탕 재고량은 지난 6년 사이 최초로 하락세를 기록하게 된다.¹⁾ 위와 같은 재고량 감소와 소비량 증가로 인해 2016/17년 세계 설탕가격 지수 또한 11% 상승하여 파운드 당 평균 16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세계 설탕 지수



주: 1)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량은 원물 가치 기준으로 10월~9월 사이의 수치에 해당함.

2) f는 ABARES 전망, z는 AVARES 예측.

자료: ABARES(2016).

1.1.2. 2016/17년 세계 설탕 생산량 회복세 전망

2015/16년 세계 설탕 생산량은 전년대비 3% 하락한 1억 7,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유럽(EU), 인도의 생산량 감소와 호주, 브라질, 태국, 미국의 생산량 증가가 상쇄된 결과이다.

인도의 경우, 2015/16년 사탕수수 생산량은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설탕 생산량은 약 3% 감소하여 3,000만 톤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소세는 2% 증가

1) 세계 설탕 재고량은 2010/11년에 특히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며, 2014/15년 7,780만 톤을 기록하였음.

된 사탕수수 생산량의 대부분이 구르(gur)나 재거리(jaggery)²⁾와 같은 정제하지 않은 천연 설탕 덩어리를 생산하는데 할당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2014년 인도 내 재거리 생산용 사탕수수의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재거리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5/16년 중국의 설탕 생산량은 사탕무와 사탕수수 생산량의 뚜렷한 하락세에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10% 감소한 1,0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 재배농가의 사탕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21% 감소한 8,600만 톤, 사탕무 생산량은 14% 감소한 8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재배농가들은 대체작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설탕 가격 때문에 재배량을 줄였으며, 건조한 기후조건으로 인해 주요 생산지역의 수확량 또한 감소하였다.

2015/16년 유럽의 설탕 생산량은 2,35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4/15년의 2,800만 톤에 비해 하락한 수치이다. 이러한 감소세 전망은 EU의 설탕 생산량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U는 2015/16년 전년대비 23% 감소한 약 1,500만 톤의 생산량을 보였으며,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낮은 설탕가격이 형성됨에 따라 생산농가들이 재배면적을 축소한 결과로 보인다. 평균 수확량 또한 EU 국가 대부분에서 보인 건조기후로 인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감소세는 동유럽의 설탕 생산량이 3% 증가하면서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는데, 동유럽 중에서도 특히 2015/16년 러시아의 설탕생산량은 전년대비 8% 상승한 53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승세는 러시아 국내 설탕 단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약 100만 ha의 면적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같은 시기 러시아의 평균 사탕무 수확량은 ha당 38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5/16년 브라질의 사탕수수 생산량은 5% 증가하여 6억 6,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브라질 사탕수수의 약 90%를 생산하는 브라질 중남부 지역의 양호한 계절조건으로 인한 평균 수확량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 해당시기 사탕수수 평균 수확량은 ha당 72톤으로 약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5/16년 브라질 설탕 생산량은 전년대비 1% 상승한 3,78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탄올 생산에 투입되는 사탕수수의 양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사탕수수 가공물량(cane crush)의 전망치 증가 수준에 비해 설탕 생산량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하였다.

에탄올 생산에 투입되는 사탕수수 양이 증가될 것이라는 추측은 2015년 2월 브라질

2) 대추야자와 사탕수수 즙을 증류하여 만든 정제되지 않은 설탕덩어리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지에서 주요 식재료로 소비됨.

정부가 무수 에탄올의 휘발유 의무혼합비율을 27%로 상승시킨데 따른 결과이다. 2015/16년(4월~3월)의 첫 10달 동안 에탄올 생산에 투입된 사탕수수의 양은 59%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를 2014/15년 수치인 56%에 비교해보면 뚜렷한 상승세를 볼 수 있다.



주: 1) 생산량은 원물가치 기준임
 2) z는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6).

태국의 2015/16년 사탕수수 생산량은 약 3% 증가한 1억 8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전망치는 전년대비 5% 늘어난 재배면적과 2% 감소한 평균 수확량이 상쇄된 결과로 보인다. 우선 사탕수수 재배면적의 증가는 쌀 생산 농가를 사탕수수 생산 농가로 전환시키기 위해 태국 정부가 도입한 유인정책에 의한 결과이다. 그 결과 2015/16년 사탕수수 가공량이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설탕 생산량은 약 1% 증가한 1,160만 톤에 그쳤는데, 이는 사탕수수나 원당(raw sugar)을 취급했던 설탕공장들이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에탄올 생산으로 방향을 전환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 9월 기준, 에탄올의 국내 가격은 리터 당 63센트인데 반해, 세계 설탕 수출 가격은 파운드 당 12센트에 그쳤다.

2015/16년 미국의 설탕 생산량은 2% 증가하여 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탕수수 및 사탕무 재배 지역은 1% 증가하여 82만 5,000ha가 되었으며, 양호한 기후조건 또한 평균 사탕수수 및 사탕무 재배량 증가에 미약하게나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6/17년 세계 설탕 생산량은 3% 증가하여 약 1억 8,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EU, 중국, 브라질, 인도의 설탕 생산량 증가 예측에 주로 기인한다.

2016/17년 EU의 설탕 생산량은 29% 증가하여 1,900만 톤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5/16년의 건조기후에 비해 평균적으로 양호한 계절적 조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탕무와 사탕수수가 재배되고 수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16년 1,030만 톤을 기록했던 중국의 설탕 생산량은 2016/17년 1,2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치는 설탕 생산의 수익성 증대에 따른 사탕수수 및 사탕무의 예상 재배량 증가를 반영한 수치이다. 2016/17년 브라질의 설탕 생산량은 4,0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대비 5% 증가한 수치이다. 브라질 설탕 생산량의 증가세 또한 설탕 생산의 수익성 증대에 따른 농가의 사탕수수 재배량 증가에 주로 기반한다. 비록 브라질 정부가 에탄올 수요 증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유가(oil price)가 에탄올 소비량 증가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에탄올 생산에 투입된 사탕수수의 양 또한 현재 59% 수준에서 2016/17년에는 5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세계 설탕 생산량의 국가별 변화 전망



주: 생산량은 원물가치 기준임.
 자료: ABARES(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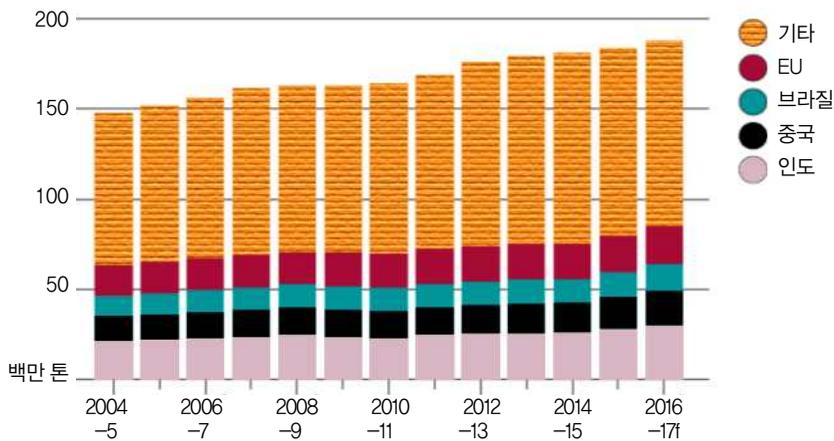
1.1.3. 2016/17년의 설탕 소비량 상승 전망

세계 설탕 소비량은 2014/15년 1억 8,100만 톤에서 2015/16년 1억 8,4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식

식품 가공산업부문의 설탕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수치가 현실화된다면, 세계 설탕 소비량 전망은 지난 6년 사이 최초로 세계 생산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6/17년 세계 설탕 소비량은 비(非) OECD국가의 소득 및 인구 증가에 힘입어 약 1% 증가한 1억 8,7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이 전체 예상 설탕 소비 증가량의 약 95%를 소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국가별 세계 설탕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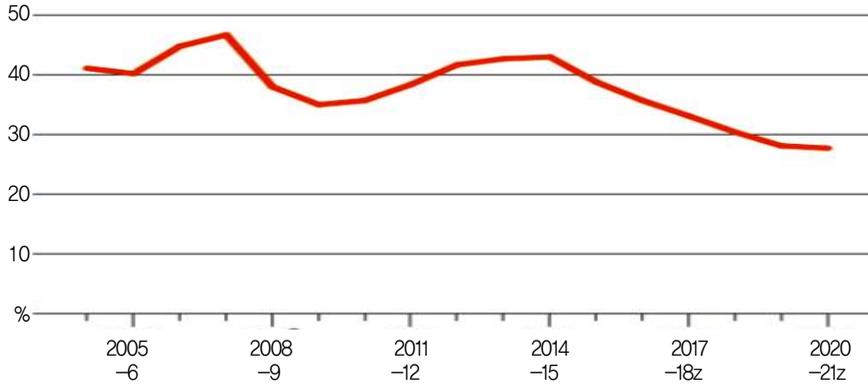
주: 1) 소비량은 원물가치 기준임
 2) 는 ABARES 전망.
 자료: ABARES(2016).

1.1.4. 2016/17년 설탕 재고량 감소 전망

세계 설탕 기말재고량은 지속적인 소비량 증가로 인해 2014/15년의 7,780만 톤에 이어 2015/16년 7,100만 톤으로 하락하였다. 그 결과 2015/16년 세계 설탕 재고율 또한 전년대비 2% 하락한 39%에 그쳤다.

2016/17년에도 설탕 소비량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탕 재고량은 약 6% 하락한 6,7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설탕 재고율은 약 36%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세계 설탕 재고율



주: z는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6).

1.1.5. 2016/17년 세계 설탕 수출량 증가 전망

세계 설탕 수출량은 2014/15년 6,400만 톤에서 2015/16년 6,600만 톤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 설탕 수출 국가들의 공급량 증가와 중국, EU, 인도네시아 등지로부터의 강력한 수입 수요에 기인한다. 실제로 브라질, 태국, 인도, 호주 등의 국가에서 더 많은 양의 설탕을 생산, 수출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전망된 바 있다. 비록 2015/16년 인도의 설탕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정부의 수출보조금과 2014/15년의 이월 재고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탕 수출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016/17년 세계 설탕 수출량 또한 10% 증가하여 7,200만 톤을 기록,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또한 지속적인 설탕 생산량의 증가와 수입 수요의 증가 예상에 기인한다.

1.1.6. 2016/17년 호주 설탕 수익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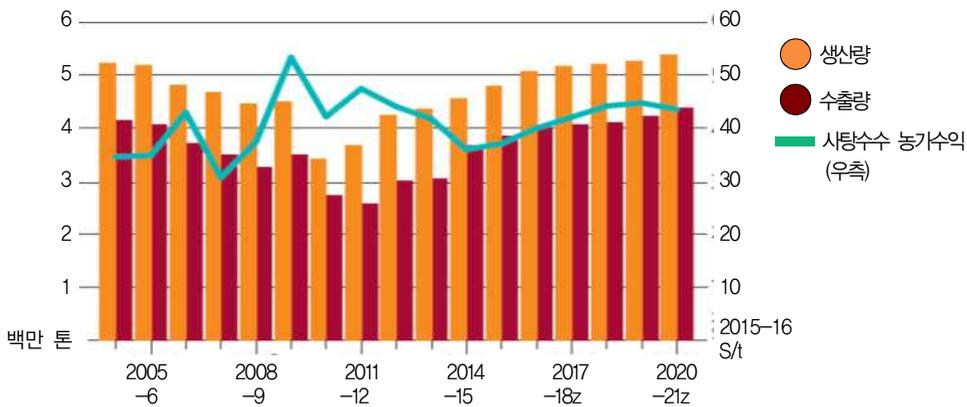
2015/16년 호주 사탕수수 농가의 평균 제분수익은 3% 상승한 37달러/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설탕가격의 강세와 호주 달러의 가치 하락을 반영한 결과이다. 2016/17년의 제분 수익은 8% 증가한 톤당 40달러로 예상되며, 이러한 예상치 또한 세계 설탕가격의 강세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1.1.7. 2016/17년 호주 설탕 생산량 소폭 증가 전망

2015/16년 호주 설탕 생산량은 5% 증가하여 48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설탕수수 생산량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같은 시기 호주의 사탕수수 생산량은 3% 증가하여 3,310만 톤을 기록하였다. 다만 건조 기후의 영향과 일부 재배지역에서 나타난 캐노피 증후군의 확산으로 인해 평균 수확량은 다소 감소하였다.

2016/17년 호주 설탕 생산량은 6% 증가하여 51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탕수수 재배량 및 수확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생산량이 증가한 결과이다.

그림 6 호주 설탕 생산량, 수출량, 사탕수수 농가 수익



주: 1) 생산량, 수출량은 원물가치 기준임.
 2) z는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6).

위와 같은 설탕 생산량의 증가를 고려할 때, 2015/16년 호주 설탕 수출량은 5% 증가한 38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17년 호주 설탕 수출량 역시 그 증가세를 이어 4% 증가한 4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5/16년 호주 설탕 수출 가치는 약 8% 증가한 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6/17년에는 7% 증가한 1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승세는 수출량 증가와 세계 설탕가격의 강세, 호주 달러가치 하락 전망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1.2. 설탕 중기 전망

1.2.1. 강력한 설탕 수요에 따른 세계 가격지지 전망

2020/21년까지 세계 지수 가격은 파운드 당 평균 약 16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2015/16 달러 기준). 이러한 상승세 예측은 중기적으로도 설탕 소비량이 여전히 생산량을 초과함에 따라 세계 설탕 재고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에 기반한다.

세계 설탕 소비량은 1년마다 평균 250만 톤씩 증가하여 2020/21년에는 1억 9,7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은 세계 인구의 증가와 비(非) OECD국가인 인도,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 예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국가들의 식품 가공산업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설탕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설탕 생산량은 2015/16년 전망치인 1억 7,700만 톤에서 연평균 2%로 증가되어 2020/21년에는 1억 9,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양호한 기후조건과 높은 설탕가격에 따른 농가 재배면적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브라질, 인도, 중국, 태국, 멕시코, 호주, 파키스탄 등의 주요 설탕 생산국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다.

세계 사탕수수 에탄올 생산량은 현재에 비해 그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현저한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해 세계 최대 사탕수수 에탄올 생산국인 브라질은 제한적이거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태국이나 인도와 같은 소규모 에탄올 생산국가의 경우 또한 유가 하락에 따른 에탄올 소비량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정부 보조금이나 에탄올 생산에 대한 지원책에 의해 다소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1.2.2. 주요 생산국들의 중기 생산 전망

2020/21년 브라질의 설탕 생산량은 4,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9/10년의 4,100만 톤과 비교하여 약 15% 상승한 수치이다. 이러한 예측치는 주로 브라질 정부의 사탕수수 재배 및 생산 장려책에 기반하고 있다. 일례로 2012년 브라질 정부는 노화된 사탕수수 재배 시설을 교체하고 사탕수수 생산을 위한 새로운 토지 구입 용도로 22억 달러 규모의 대출상품을 발표한 바 있다.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용 사탕수수 수요는 휘발유와 무수에탄올의 의무 혼합비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체 대비 에탄올

생산용 사탕수수의 비중은 현재 59% 수준에서 2020/21년 42%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설탕 생산으로 인한 이익이 회복세를 되찾고,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해 에탄올 소비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결과이다.

2020/21년 인도의 설탕 생산량은 2015/16년 3,000만 톤에서 3,4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의 사탕수수 생산량은 인도의 몬순(monsoon)기간 동안의 강수량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보이는데, 이러한 기후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인도 정부는 보다 많은 관개 댐을 건설하는 데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 정부는 국내 설탕 생산량을 제고하기 위해 원당과 정제설탕에 대한 최소가격보장제도(minimum support prices)나 수출 보조금, 대출 상품 등을 운영하는 등의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0/21년 태국의 설탕 생산량은 2015/16년의 1,200만 톤 수준에서 성장하여 1,400만 톤을 기록하였다. 태국 정부는 설탕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기존의 정책 방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책으로는 국내 설탕가격 지정제, 새로운 공장에 대한 투자, 사탕수수 농가 직불제, 에탄올 생산지원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2020/21년 EU의 설탕 생산량은 2,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5/16년의 1,500만 톤 규모와 비교해보면 상승한 수치이다. 2017년 10월부터 EU 쿼터제가 종료되면 더 많은 사탕무 재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러한 증가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U 쿼터제는 사탕무의 최소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각 회원국의 설탕 생산량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015/16년 기준 각 국에 할당된 생산량 쿼터는 1,350만 톤이었으며, 이를 초과한 생산량은 다음 해의 쿼터에서 제하거나, 바이오연료 생산 및 기타 비식품(산업)용도의 수출 판매만 허용되었다.

2020/21년 러시아의 설탕 생산량은 650만 톤을 기록하여, 2015/16년 전망치인 120만 톤과 비교하여 상승세를 보인다. 이러한 상승세의 원인은 러시아 정부가 증가하는 국내 수요에 발맞추어 설탕 자급률을 90% 이상 수준으로 만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20/21년 미국의 설탕 생산량은 2015/16년 800만 톤 수준에서 900만 톤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생산농가에 대한 보조 융자(subsidized loan)제도나 국내 설탕가격을 세계 설탕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세할당제도(tariff-rate quota) 등을 통해 설탕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은

사탕수수 및 사탕무 생산농가와 가공업자에 용자를 제공하여 시장가격 수준과 상관없이 최소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보통 9개월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생산농가가 정부에 설당을 되팔거나 시장에 설당을 판매하여 용자금을 갚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5/16년 기준 대출금리는 원당의 경우 파운드 당 18.75센트, 정제설당의 경우 파운드 당 24.09센트를 기록하였다.

2020/21년 멕시코의 설탕 생산량은 대(對) 미국 수출의 호조로 77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시장에 보다 높은 접근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설탕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미국 설탕가격의 혜택을 받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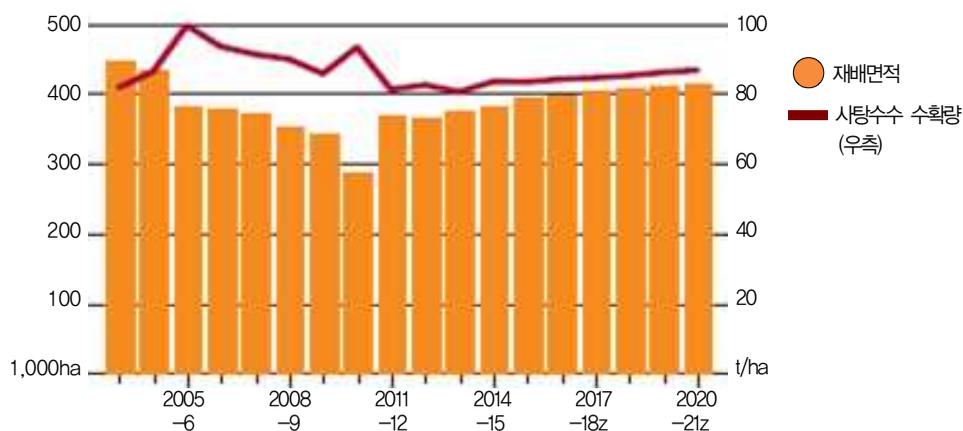
1.2.3. 중기 세계 설탕 수출량 증가 전망

세계 설탕 수출량은 연간 평균 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0/21년에 이르러서는 7,98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요 설탕 생산국가인 브라질, 태국, 호주, 멕시코, 인도 등의 설탕 수출 가능량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1.2.4. 중기 세계 설탕 재고율 하락 전망

세계 설탕 재고량은 연간 평균 270만 톤씩 감소하여 2020/21년 5,500만 톤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설탕 소비량의 빠른 증가세가 중기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한 결과이다. 만약 이 수치가 현실화된다면, 세계 설탕 재고량은

그림 7 호주 사탕수수 재배 면적 및 수확량



주: z는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6).

4,700만 톤을 기록한 1997/9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더불어 2020/21년 설탕 재고율은 15% 하락하여 약 2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재고율이 될 전망이다.

1.2.5. 중기 호주 사탕수수 재배 농가 수익 및 설탕 생산량 증가 전망

세계 설탕 가격의 지속적인 강세를 고려할 때, 2020/21년 호주 사탕수수 농가의 평균 농가수취가격은 톤당 44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2015/16 달러 기준). 이는 2015/16년의 전망치인 톤당 37달러에 비해 상승한 수치이다.

2020/21년 호주의 사탕수수 재배지역은 41만 3,000ha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표 1 설탕 전망

		단위	2013/14	2014/15s	2015/16f	2016/17f	2017/18z	2018/19z	2019/20z	2020-21z
세계										
생산량	톤		182.1	182.4	177.0	182.9	185.0	189.8	192.8	196.0
- 브라질	톤		39.6	37.0	37.8	39.7	42.5	43.9	45.3	47.0
소비량	톤		179.0	181.0	183.5	187.5	189.3	193.6	196.5	196.9
수출량	톤		64.3	64.0	66.0	72.4	73.5	75.5	77.2	79.8
기말재고량	톤		76.4	77.8	71.4	67.0	62.6	59.1	55.6	55.0
재고율	%		42.7	43.0	38.9	35.7	33.1	30.5	28.3	28.0
가격										
- 명목	US센트/ 파운드		16.8	13.4	14.0	15.5	17.0	17.5	17.7	17.5
- 실질	US센트/ 파운드		17.1	13.5	14.0	15.2	16.4	16.5	16.4	15.9
호주										
생산량	킬로톤		4,364	4,572	4,800	5,081	5,179	5,222	5,266	5,387
수출량	킬로톤		3,052	3,675	3,846	4,004	4,068	4,105	4,226	4,382
수출가치										
- 명목	A\$m		1,384	1,643	1,766	1,883	2,095	2,202	2,338	2,440
- 실질	A\$m		1,436	1,676	1,766	1,838	1,995	2,046	2,120	2,158

- 주: 1) 양(volume) 수치는 원물기준 기준
 2) 세계·브라질 전망치는 10월~9월 생산 기준, 호주 전망치는 7~6월 생산 기준.
 3)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 뉴욕 no.11 contract의 선물가격 인용.
 4) US 센트는 2014/15 미국 달러 기준.
 5) 호주 생산량은 실제 원물 톤 기준.
 6) 호주 실질 수출액은 호주 달러 기준.
 7) s는 ABARES 추정치, f는 ABARES 전망, z는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6).

는 2015/16년 전망치인 39만 3,000ha와 비교하여 약 5% 높아진 수치이지만, 2003/04년 기록인 44만 8,000ha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현존하는 설탕 재분소에 근접한 토지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일부 사탕수수 재배지가 조림 등의 명목으로 용도 전환되었다는 점 등이 사탕수수 재배면적 확장을 저지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2020/21년 사탕수수 생산량은 사탕수수 평균 수확량 4% 증가, 재배면적 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2015/16년 3,300만 톤에서 3,6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사탕수수 가공물량을 고려할 때, 호주 설탕 생산량은 연간 1%의 성장세를 보이며 2020/21년 54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측치는 2015/16년의 480만 톤보다는 성장한 수치이지만, 1997/98년에 기록한 560만 톤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20/21년 호주의 설탕 수출량은 44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어, 2015/16년의 수치와 비교할 때 14%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7/98년의 470만 톤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이다. 2020/21년 호주 설탕 수출 가치는 22억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며(2015/16 달러 기준), 이는 2015/16년의 18억 달러 수준과 비교하여 상승한 수치이다.

2. 2016년 면화 전망

단기적으로 세계 면화가격은 세계 면화 이월재고량의 증가와 침체된 면화 수요로 비추어 볼 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격 하락세는 소비량의 증가와 세계 재고량의 하락을 고려할 때 느린 속도지만 중기적으로 회복세를 되찾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면화가격 회복세에 힘입어 호주 면화 생산자들의 실질적인 이익이 또한 중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호주 면화 수출량은 2020/21년 89만 8,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16년 50만 9,000톤의 예상 출하량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2.1. 면화 단기 전망

2.1.1. 2016/17년 세계 면화 가격 하락 전망

세계 면화가격 지표(Cotlook 'A'지수)는 2015/16년(8월~7월) 1% 하락하여 파운드 당 평균 70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세계 면화 생산량은 감소세를 보이지만, 전년에서 이월되어 기록적으로 늘어난 세계 면화 재고량과 세계 면화수요의 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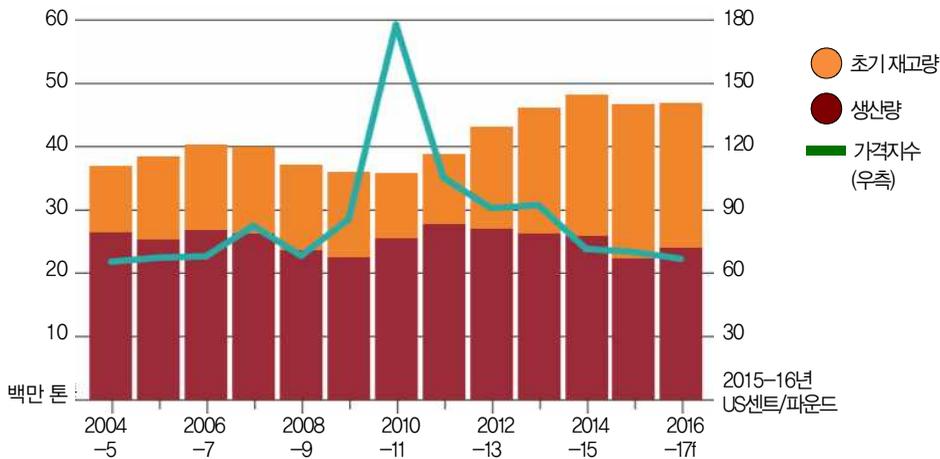
체 등의 요인이 가격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 면화 재고량은 2013/14년까지 지난 4년간 급격히 증가하여 2014/15년에는 2,440만 톤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재고량의 증가는 중국이 2011/12년부터 2013/14년에 걸쳐 전략적으로 면화 비축정책을 펼치면서 국내 생산 면화를 세계 시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대량의 면화를 수입한 결과이다.

동 정책은 2014/15년에 들어서면서 자국 내 면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도와 수입축소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2015/16년 말 기준 세계 재고량의 약 62%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17년 세계 면화 가격 지표는 파운드 당 평균 68센트로 약 3%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이월재고량의 감소세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락세가 전망되는 이유는 세계 면화 공급량은 증가할 전망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화 수요가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다만 이 전망의 맹점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면화 재고량의 행방에 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자국의 면화 재고량을 세계 시장에 방출할 경우, 세계 면화 가격은 현재의 전망치보다 훨씬 더 하락할 것이다.

그림 8 세계 면화 공급량 및 가격지수 전망



주: 는 ABARES 전망.
자료: ABARES(2016).

2.1.2. 2016/17년 세계 면화 생산량 회복 전망

세계 면화 생산량은 2015/16년 약 2,330만 톤을 기록하여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는 호주를 제외한 모든 주요 생산 국가들에서의 생산량 하락 전망을 반영한 수치이다. 실제로 세계 면화 재배면적이 8% 감소하고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6% 하락한다는 예상은 이러한 하락세를 뒷받침한다. 재배면적의 감소는 주요 생산국의 면화 파종시기에 약세를 보였던 세계 면화 가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재배면적당 생산량의 감소는 엘니뇨 기후의 역효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2015/16년 인도의 면화 생산량은 2014/15년에 비해 4% 하락하여 62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파종시기에 인도의 국내 면화가격이 약세를 보인 탓에 재배 농가들이 쌀이나 수수 등의 대체작물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도의 면화 재배면적은 8% 감소하였지만, 이러한 감소세는 동 시기 단위면적당 평균 수확량이 4% 증가함에 따라 일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인도의 평균 면화 수확량이 상승한 이유는 2015년 몬순기간 동안 인도 내 주요 면화 재배지역의 강우시기와 강우량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2015/16년 면화 생산량은 520만 톤으로, 전년대비 20%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면화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 감소하여 360만 ha로 축소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생산농가들의 면화 재배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중국 정부의 면화 관련 정책 방향의 전환에 기인한다. 2014/15년을 기준으로 면화 국가수매프로그램(State Purchase of Domestic Cotton Program)이 재배농가 직불제(direct payments)로 대체되면서, 재배농민들은 낮은 수익성을 지닌 면화를 대신할 대체작물 재배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한편 평균 수확량의 경우 2014/15년 높은 수준의 기록에 반해, 중국은 2015/16년의 경우 ha당 1.5톤 내외의 단위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보일 전망이며 이는 전년대비 1% 감소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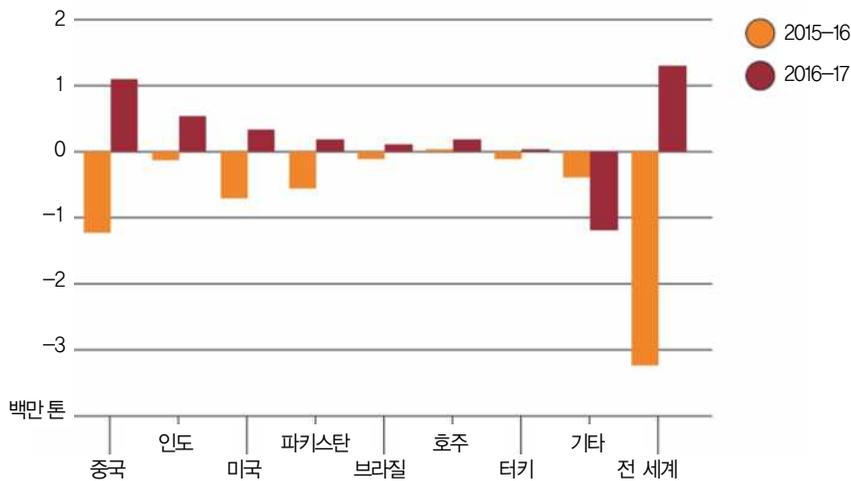
2015/16년 미국의 면화 생산량은 280만 톤으로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화 재배면적의 경우 360만ha로 18% 감소했으며 단위면적당 평균 수확량은 3% 하락하여 0.86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면화 재배면적 감소의 원인은 파종시기 옥수수나 밀과 같은 대체작물 대비 면화 재배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위면적당 평균 수확량은 일부 주요 생산지역의 기후 악조건으로 인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 수치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면화 평균 생산량은 ha당 0.82톤이었던 2003/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2015/16년 파키스탄의 면화 생산량은 2015-16시즌의 230만 톤보다 적은 16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세는 엘니뇨 기후의 역효과로 인해 단위면적당 평균

수확량이 28% 감소한 결과이다. 국내 파종 시기에 비교적 낮게 형성된 국내 면화 가격 수준으로 인해 면화 재배면적 또한 약 5% 하락하여 280만ha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6/17년 세계 면화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2% 확대와 단위면적당 평균 수확량의 4% 증가에 힘입어 약 7% 상승한 2,400만 톤을 기록하고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16년 엘니뇨 기후의 영향에서 벗어나 평년 기후조건을 회복한다면 주요 생산국들의 단위면적당 평균 수확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국가별 전년대비 면화 생산량 변화



자료: ABARES(2016).

2.1.3. 2016/17년 세계 면화 소비량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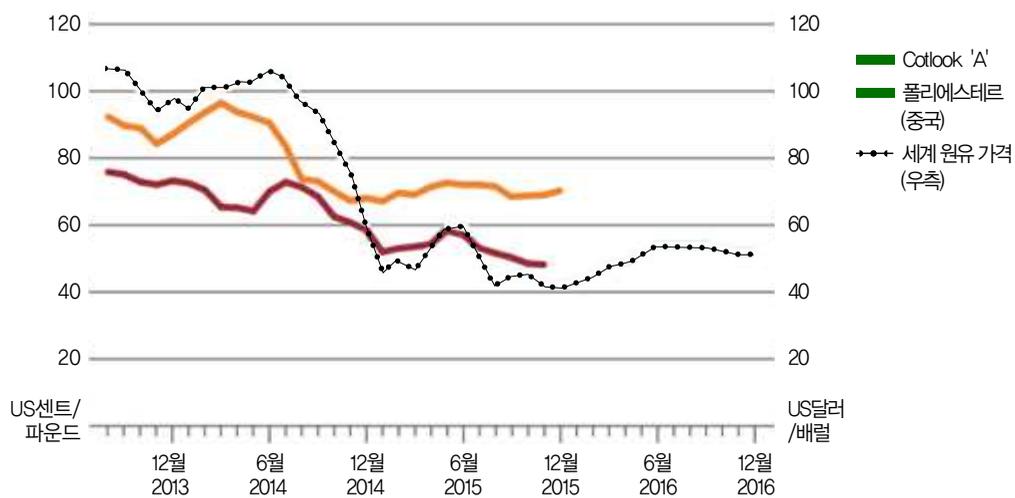
2015/16년 세계 면화 소비량은 2014/15년에 비해 1% 상승하여 2,43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의 면직물 및 의복생산 업체들의 면화 수요 증가세가 중국의 수요량 감소세를 상쇄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5/16년 중국의 면화 소비량은 전년대비 2% 감소한 700만 톤 내외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07/08년에 기록한 1,110만 톤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중국의 면화 소비량은 국내 면화의 높은 가격수준과 국내 방적사(yarn) 생산비용 상승에 영향을 받아 지난 6년간 꾸준히 감소해왔다. 특히 중국 내에서의 방적사 생산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양이 늘었고, 그 결과 중국의 면 방적사(cotton yarn)의 수입 수요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2014/15년 중국은 230만 톤의 면 방적사(무게 기준으로 면화 함량 최소 85% 이상)를 수입했다. 이는 2013/14년 수입량에 비해 10%나 증가한 기록적인 수치이다. 이 중 80% 가까이 되는 양이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에서 수입된 물량에 해당한다.

한편 세계 면화 소비량은 세계 원유 가격의 약세로 인해 합성섬유와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고, 단기적으로 그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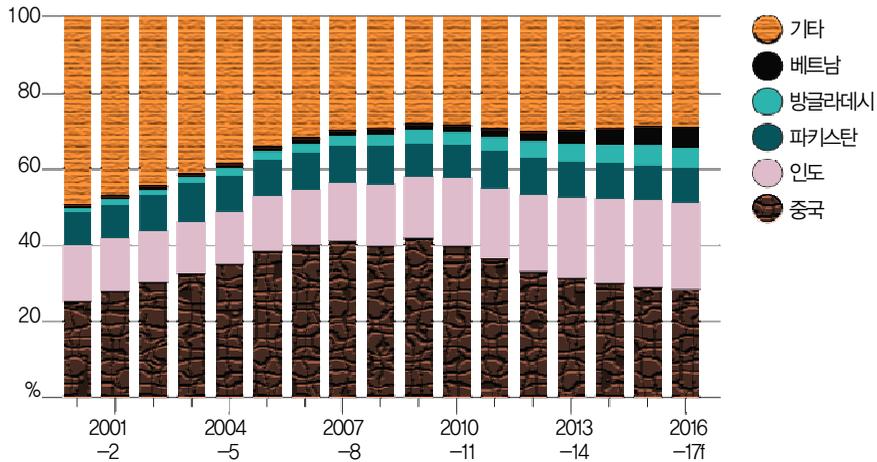
그림 10 세계 의류용 섬유 가격 및 원유 가격 월별 추이 전망



주: 폴리에스테르의 가격은 면화가격지표로 환산한 값임.
 자료: ABARES(2016).

2016/17년 세계 면화 소비량은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에서의 소비량 증가에 힘입어 약 2,500만 톤으로 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2016/17년 중국의 면화 소비량은 700만 톤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수치가 현실화된다면, 2009/10년 전체 세계 면화 소비량에서 4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의 지분이 2016/17년에는 2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 국가별 면화 소비 비중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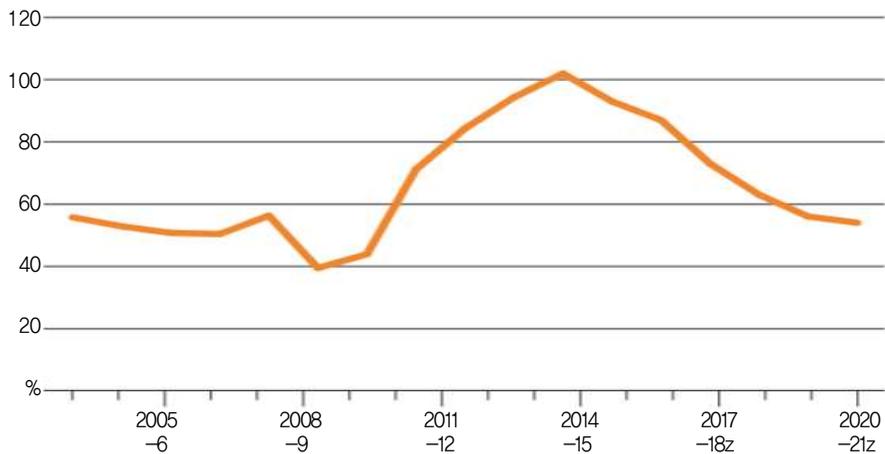


주: z는 ABARES 전망.
자료: ABARES(2016).

2.1.4. 2016/17년 세계 면화 재고량 높은 수준 유지 전망

2015/16년 세계 면화 재고량은 면화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을 고려할 때, 전년대비 7% 하락한 2,27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치가 실제화 된다면, 2009/10년 이후 중국 정부의 면화 재고 비축정책으로 인해 수년간 증가

그림 12 세계 면화 소비 대비 재고율



주: z는 ABARES 예측.
자료: ABARES (2016).

해은 세계 면화 재고량이 최초로 다시 감소세에 접어들게 된다. 그 결과 2015/16년 세계 면화 소비 대비 재고율은 2014/15년 102%에서 9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고율 하락세와 더불어 2016/17년 세계 면화 재고량은 6% 하락한 2,13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14년 이전 10년간의 평균치인 1,500만 톤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1.5. 2016/17년 세계 면화 수출량 회복세 전망

2015/16년 세계 면화 수출량은 770만 톤으로 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와 미국, 호주, 우즈베키스탄 등의 주요 수출 국가들의 면화 공급 감소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2016/17년 세계 면화 수출량은 800만 톤 내외로 3%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시기 면화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미국, 인도, 호주,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등의 수출용 면화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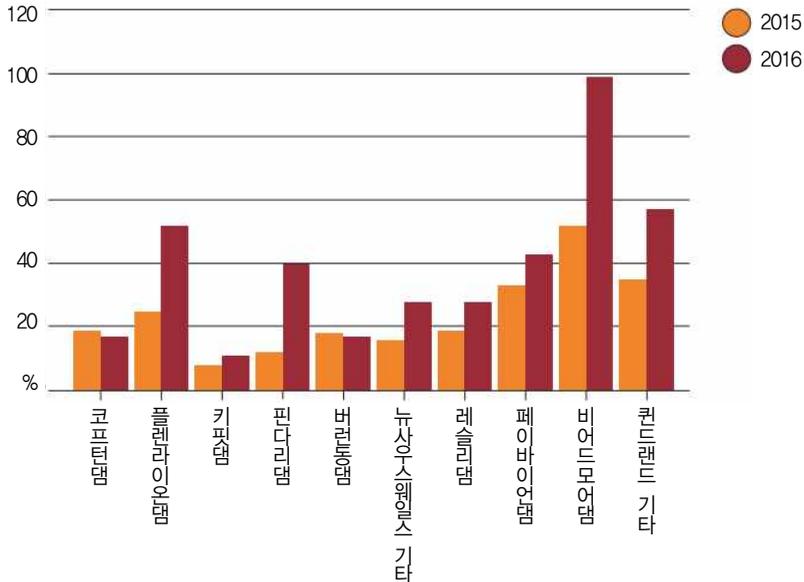
2.1.6. 호주 면화 생산량 단기 회복세 전망

2015/16년 호주의 면화 생산량은 6% 증가하여 54만 6,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호주의 면화 재배면적이 37% 확대되어 27만 ha로 늘어난 데 큰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면화 재배 면적 확대의 주요 원인은 2015년 11월 당시 평균을 웃도는 강수량으로 인해 약 6만 ha에 이르는 호주 면화생산지역에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공공 댐의 수위가 상승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상 호조로 인해 면화를 재배하는 총 관개면적은 21만 ha로 약 7%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배면적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단위면적당 평균 수확량은 ha당 2톤으로 23%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수확량 대비 건지(dry land)에서 생산된 면화의 비중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보통 건지에서 생산된 면화의 경우, 관개지역 생산 면화와 비교하여 약 70% 수준의 수확량을 보인다.

2016/17년 호주 면화 생산량은 49% 증가하여 81만 6,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면화 재배면적은 48% 증가하여 40만 h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단위면적당 평균 수확량은 장기적으로 볼 때 ha당 평균 2.04톤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6년 3월부터 파종시기인 2016년 9월 사이의 기후조건이 양호하게 유지되어 관개용 댐의 수위가 상승하고 이를 통해 추가 재배면적에 대한 충분한 관개용수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유효한 전망 결과이다.

그림 13 호주 주요 면화생산지 공공댐 수위 수준 (1월 27일 기준)



자료: ABARES(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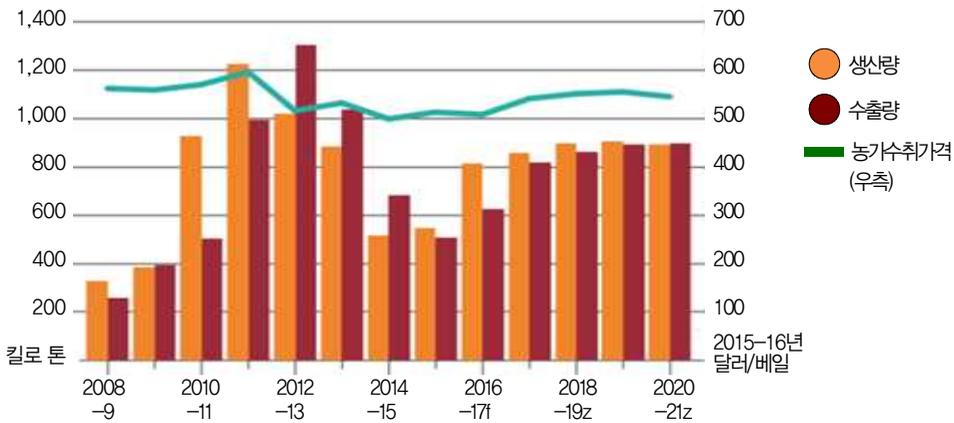
2.1.7. 2016/17년 호주 면화 재배농가 수익 감소 전망

면화 종자 가치 및 총 조면비용(net of ginning cost)을 고려한 2015/16년 호주 면화 재배농가의 농장 수취가격은 수확량 1베일(bale, 227kg)당 평균 513달러로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예측은 호주 달러의 평가 절하 예측에 주로 기반한다. 2016/17년 면화 재배농가 수익은 세계 면화 가격의 약세로 인해 베일 당 508달러를 기록하여 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1.8. 2016/17년 호주 면화 수출량 외복 전망

2015/16년 호주 면화 예상 수출량은 50만 9,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4/15년의 68만 1,000톤에 비해 하락한 수치이다. 이러한 하락세 예측은 2014/15년의 호주 면화 생산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보통 호주의 면화 수확 시기는 3월부터 6월까지인데 이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1년간 생산된 양이 2년에 나뉘어 수출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16/17년의 호주 면화 수출량은 2015/16년부터 2016/17년까지의 면화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받아 약 23% 회복한 62만 4,000톤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4 호주의 면화 생산량, 수출량 및 농가수취가격 전망



주: 1) 농가수취가격은 수확량과 목화 종자 가치, 조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설정.

2) 1)는 ABARES 전망, 2)는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6).

2.2. 면화 중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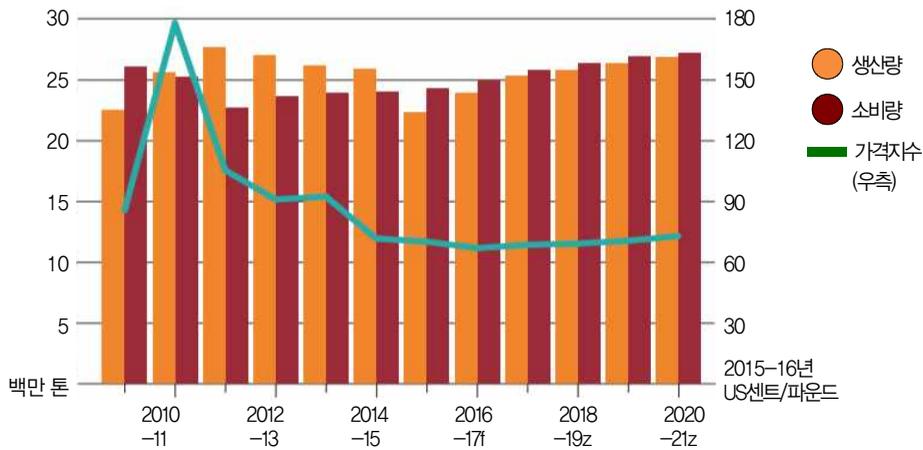
2.2.1. 세계 면화 가격의 중기적 회복 전망

면화 가격이 중기적으로 회복세를 되찾음에 따라, 2020/21년 세계 면화 가격은 파운드 당 평균 73센트(2015/16년 달러 기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면화 생산량 대비해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면화 재고량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한 결과이다. 예상 면화 소비량의 증가는 식물 및 의복 생산을 목적으로 한 몇몇 아시아 국가의 면화 수요량 증가와 중국 면화 수요량의 회복세가 중기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한 결과이다.

중기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가격 하락 위험 요소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면화 재고량이다. 중국 정부는 면화 재고량을 서서히 세계 시장에 방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한 번에 많은 양의 재고량을 방출한다면 급작스런 공급량 증가에 의해 세계 면화 가격은 가격 하락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중기적으로 세계 면화 생산량은 매년 1.6% 상승하여 2020/21년 약 2,700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세계 면화 재배면적의 확대 및 단위면적당 수확량의 소폭 향상 전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면화 재배면적은 매년 약 1.4% 증가하여 2020/21년에는 3,460만 ha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보다 많은 재배농가들이 수수, 대두, 옥수수 등의 대체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면화를 선

그림 15 세계 면화 생산 및 소비, 가격지수 전망



주: n은 ABARES 전망, z는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6).

택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면화 수확량은 중기적으로 미약한 성장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유전자 개량종으로의 재배 전환이 거의 완료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기후조건을 가정할 때, 2020/21년 세계 평균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ha당 0.79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5/16년 530만 톤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중국 면화 생산량은 중기적으로 800만 톤까지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정부는 관개용수의 효율적 관리, 농민대상 농기계 및 화학비료 활용 교육, 면화 생산 공동체의 지역 기업체의 장려 등 면화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 투자 기조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1년 인도의 면화 수확량은 생산성 향상, 수확량 및 품질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800만 톤 가까이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인도 정부는 최소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하고 면화 재배의 기후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관개용 댐과 전기 인프라시설에 투자하는 등의 정책으로 면화 생산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1년 미국의 면화 생산량은 2015/16년 280만 톤에서 5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6년의 520만 톤의 기록적인 수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예측 결과는 미국 고지대 주요 면화 생산 지역에 지난 5년간 지속되었던 가뭄이 끝나고 기후조건이 양호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전제 하에 유효한 결과이다.

2020/21년 파키스탄의 면화 생산량은 2014/15년 230만 톤 수준에서 3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생산량의 증가는 파키스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개사업과 병해충 관리 프로그램, 면화 재배농가 대상 화학비료 사용 교육 등의 투자사업의 영향력에 크게 기인한다.

브라질의 면화 생산량은 2015/16년 140만 톤 수준에서 2020/21년 25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브라질은 면화재배에 적합한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예측기간 동안 세계 면화생산에 크게 기여할만한 잠재 역량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잠재역량을 실현하기 위해 브라질은 관개사업 및 면화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여 면화 재배면적의 확대를 장려하고 단위면적당 수확량 및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2.2. 세계 면화 소비량 증기 성장 전망

세계 면화 소비량은 매년 1.8% 가량 증가하여 2020/21년에는 2,700만 톤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OECD 비(非)가입 국가, 특히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브라질, 터키의 직물 및 의복 생산업체들로부터의 높은 면화 수요량과 중국의 면화 소비량 회복세를 반영한 것이다.

중기적으로도 면화 소비량이 생산량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세계 면화 재고량은 2014/15년의 2,440만 톤에서 매년 평균 3%씩 감소하여 2020/21년에는 1,9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 2020/21년 세계 면화 소비 대비 재고율은 2014/15년의 102%에서 71%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2.3. 호주 면화산업 수익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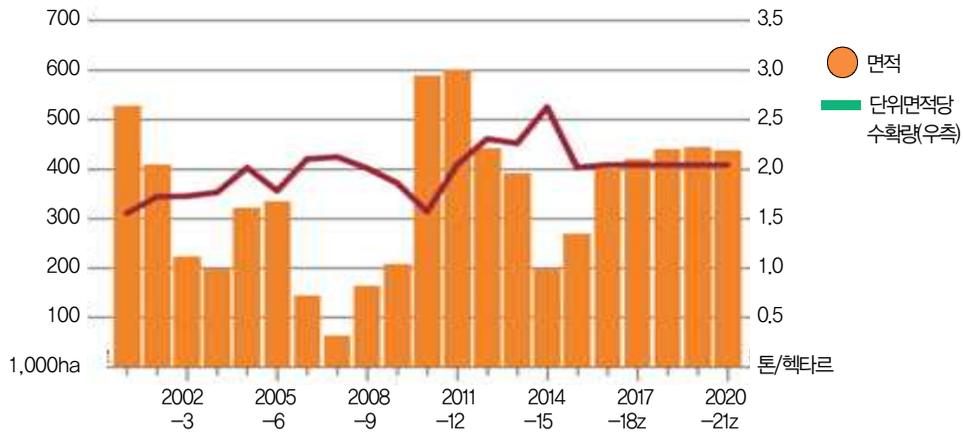
2020/21년 호주 면화 재배농가의 수익은 베일 당 평균 545달러(2015/16년 달러 기준)로 2015/16년에 비해 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세계 면화 가격이 중기적으로 회복세를 점차 되찾을 것이라는 예상에 기반한다.

2020/21년 호주의 면화 생산량은 매년 약 1.4% 증가하여 중기적으로 89만 3,000톤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10/11년까지의 지난 10년간 평균 생산량을 웃돌지만 2011/12년 기록치인 120만 톤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전망은 양호한 기후조건과 관개용수의 원활한 공급이 중기적으로 보장된다는 가정 하에 유효하다.

관개비율의 상승 및 토양의 수분 함량 증가로 인해 더 많은 목화 종자의 파종이 가능해짐에 따라, 호주 면화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유전자 개량 종으로의 재배 전환이 거의 완료된 바, 호주의 면화 재배면적당 수확량은 중기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로 호주 면화 재배지의 관개 비율은 95%이며, 유전자 개량종의 재배비율은 총 재배량의 98% 이상이다.

그림 16 호주 면화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평균 수확량 전망



주: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6).

2020/21년 호주 면화 수출량은 2015/16년의 50만 9,000톤에서 성장하여 89만 8,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호주 면화 수출가치는 2015/16년 대비 68% 상승하여 실질가격 기준 약 20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 면화 전망

	단위	2013/14	2014/15s	2015/16f	2016/17f	2017/18z	2018/19z	2019/20z	2020-21z
세계									
생산량	백만톤	26.2	25.9	22.3	23.9	25.3	25.8	26.4	26.8
소비량	백만톤	23.7	24.0	24.3	25.0	25.8	26.4	26.9	27.2
수출량	백만톤	8.9	7.9	7.7	7.9	8.4	8.7	8.9	9.1
기말재고량	백만톤	22.4	24.4	22.7	21.3	20.8	20.2	19.7	19.2
재고율	%	94.5	101.5	93.7	85.3	80.5	76.6	73.2	70.7
Cotlook 'A' 지수									
- 명목	US센트/파운드	90.6	70.8	70.0	68.0	71.0	73.0	76.0	80.0
- 실질	US센트/파운드	92.1	71.4	70.0	66.8	68.4	69.0	70.4	72.7

(계속)

	단위	2013/14	2014/15s	2015/16f	2016/17f	2017/18z	2018/19z	2019/20z	2020-21z
호주									
재배면적	1,000ha	392.0	197.0	270.0	400.0	420.0	440.0	445.0	438.0
생산량	킬로톤	885.1	516.5	546.0	816.0	856.0	897.0	907.0	893.0
수출량	킬로톤	1,036.5	681.2	508.8	624.4	819.9	861.8	892.6	898.3
수출가치									
- 명목	A\$m	2,355.4	1,546.1	1,179.9	1,438.6	1,937.6	2,045.1	2,157.9	2,242.4
- 실질	A\$m	2,443.4	1,576.9	1,179.9	1,404.4	1,845.4	1,900.3	1,956.2	1,983.2

주: 1) 세계 전망치는 8월부터 7월까지, 호주 전망치는 6월부터 7월까지를 기준으로 함.
2) Cotlook 'A' 지수는 2015/16년 US달러 기준.
3) f ABARES 전망, s ABARES 추정치, z ABARES 예측.
자료: ABARES(2016).

참고문헌

ABARES. 2016. *Agricultural Commodities*. ABARES.